

“현재 성과에 멈추지 말고, 세상 놀라게 할 진화 지속하자”

김정수 삼양라운드스퀘어 부회장
 신년사서 핵심역량 강화 등 강조
 “가장 잘하는 것에 더 집중해야
 불가능의 룰 깨는 힘 우리 안에 있어”

김정수 삼양라운드스퀘어 부회장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핵심역량 강화’, ‘웰니스&헬스케어’, ‘시너지 기반의 사업다각화’를 강조하며, 그룹의 성장과 진화를 지속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삼양라운드스퀘어는 김정수 부회장의 2025년 신년사 영상을 6일 공개했다. 해당영상에서 김 부회장은 글로벌 종합식품 기업으로 본격적인 도약을 선언한 첫해인 2024년, 식품업계 최초 ‘7억불 수출의 탑’ 수상, 단일 브랜드 기준 ‘불닭’ 수출액 1조원 등 기념비적 실적을 냈다는 점을 밝히며, “2025년에는 삼양라운드스퀘어 임직원들이 더 큰 자부심으로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현재 성과에 멈추지 말고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첫 번째 전략 키워드로 ‘핵심역량 강화’를 제안하고 “현재 가장 잘하는 것을 더 잘하도록 집중해



김정수 삼양라운드스퀘어 부회장이 2025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삼양라운드스퀘어

어떤 경쟁자도 따라올 수 없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2025년에는 생산량 증대, 해외 공장 진출, 생산 현지화 실현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와 제품생산 역량을 지금보다 강력히 내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질적인 혁신 역시 중요한 과제”라며 “올해도 ‘MEP’의 글로벌 시장 내 성공적 안착을 이어가고, ‘탱글’과 ‘책앤필스’를 통해 식물성 단백질을 비롯한 건강기능식 시장을 공략하는 등 그룹의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글로벌 브랜드 사업 역량을 강화해 나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삼양라운드스퀘어는 ‘웰니스&헬스케어’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그룹이 추구할 두 번째 미래 방향으로 제시했다. 현재 삼양라운드스퀘어는 ▲삼양라운드힐의 웰니스센터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의 정밀분석을 통한 개인별 맞춤 건강개선 서비스 사업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이다.

김 부회장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영양 공급을 위해 사명을 다해온 헤리티지를 근간으로, 인간의 건강을 위해 식생활을 넘어 ‘웰니스&헬스케어’를 실

현하는 전문적 역할로 업의 가치를 재정의하고자 한다”며 “웰스케어와 식품 간 경계와 고정관념을 허물고 통합적 사업 시너지를 창출하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스스로 변화하고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너지 기반의 사업 다각화’를 올해 그룹의 세 번째 전략 키워드로 제시하며, “R&D, 제품 개발, 생산, 마케팅, 콘텐츠, 물류 등 전체 밸류체인에 걸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통합적 확장을 시도해야 한다”며 “라면 외 소스, 스낵, 간편식, 음료 등 주력 포트폴리오 상품군을 확장하고, 헬스케어 관련 카테고리 육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웰스케어 컴퍼니’라는 새로운 가치를 개척해 나가는 여정은 쉽지 않은 도전이 되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하고 유연한 조직으로 진화할 것”이라며 “‘불가능의 룰을 깨는 힘은 우리 안에 있다’는 삼양라운드스퀘어의 정신을 되새기며 새해에도 삼양인답게, 세상을 놀라게 할 진화를 지속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하이마트 매장에서 한 방문객이 노트북 제품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롯데하이마트

롯데하이마트 전국 320개 매장에서 ‘하이라이트 빅 세일’

롯데하이마트가 이달 한 달간 ‘롯데하이마트 하이라이트 빅 세일(BIG SALE)’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롯데하이마트에 따르면 전국 320여 개 매장에서 노트북, 태블릿 등 IT 가전을 비롯해 밥솥, 그릴 등 주방가전까지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특히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1년간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인 제품들을 선별해 할인된 가격에 소개한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갤럭시북4(256GB)’를 500대 한정으로 79만9000원에 선보인다. 또한 지난 2024년에 가장 많이 판매된 ‘로지텍 M190’을 3000대 한정으로 9900원에 제공한다.

이 밖에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랩탑 고3(256GB)’를 109만9000원에, 삼성전자 ‘갤럭시 탭 S10+(256GB)’를 117만9000원에 선보인다.

설 명절을 앞두고 주방가전을 할인하는 행사도 준비했다. 쿠쿠전자 ‘IH 전기밥솥(6인용)’, 태पाल ‘스모크리스 이지 그릴’, 해마루 ‘특대형 잔치팬’ 등이 준비됐다. /안재선 기자

설 선물 키워드 가성비·가심비... ‘실속선물’ 인기

CJ제일제당, 3만원 미만 세트 확대 대상, 파스타 세트 등 선택의 폭 넓혀
 대형마트 3사, 5만원 이하 상품 늘려
 이커머스, 50% 할인 프로모션 진행

설을 앞두고 유통·식품업계에서 설 선물세트를 출시하고 있다. 고물가로 인한 내수 침체에 부담없는 가격대의 실속선물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선물세트 키워드는 ‘가심비’와 ‘가성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CJ제일제당은 웰니스·가성비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구성의 선물세트 260여종을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선물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을 위해 3만원 미만의 저렴한 선물세트도 지난 추석대비 물량을 약 14% 확대했다. ‘특별한 선택 T-2’와 ‘비비고 토종김 1호’는 1만원대의 가격으로 실속있게 구성했으며, 요리올리고당·스팸 등으로 구성된 ‘특별한선택 E-1’도 명절 부담없이 선물할 수 있는 제품이다.

웰니스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들의 물량도 대폭 늘렸다. 지난 설 첫 선을 보인 ‘스팸 닭가슴살’은 지난 추석 완



대상(췌) 청정원 명절특선호 선물세트. /대상

판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힘입어 이번 설에는 지난 추석 대비 물량을 약 66% 확대했다.

대상은 명절 선물세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와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가성비와 가심비 모두 잡은 다양한 설 선물세트 라인업을 준비했다.

특히 2만원대 가격의 실속형 제품부터 프리미엄 선물세트까지 다양하게 구성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매년 인기리에 판매되는 청정원 리미티드 에디션 선물세트는 ‘시그니처 파스타 세트’와 ‘맛선생 국물내기 세트’ 2종으로 구성했다. ‘시그니처 파스타 세트’는 청



CJ제일제당 2025 설 선물세트. /CJ제일제당

정원 파스타소스 프리미엄 라인인 시그니처 파스타소스 제품 3종을 비롯해 튀김마늘 후레이크, 파슬리, 크러쉬드 레드페퍼, 올리브유, 스파게티면 등으로 알차게 구성했다.

탄핵 정국과 고물가로 인해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모습에 대형마트도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 소비 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분주하다.

대형마트 3사는 1~5만원대 상품을 늘렸다. 이마트의 경우 올해 설 선물세트 중 5만원 미만 상품은 38.9%로 비중이 가장 높다. 지난해 설 대비 4.7% 포인트 늘린 수치다. 롯데마트는 합리적인 선물세트를 선보이기 위해 지난해

설 사전예약에 인기있던 견과 선물세트 품목 수를 50% 늘리고 물량도 30% 확대했다. 1만원대 이하 초가성비 선물세트도 준비했다. 대표 상품은 ‘비비고 토종김 5호’, ‘내과 남·여 스포츠 양말 선물세트(3족)’ 등으로 각각 9900원이다. 휠라, 컬럼비아, 피에르가르맹 등 유명 브랜드 양말도 1만 원대 미만 가격으로 선보인다.

11번가와 G마켓, 롯데온 등 이커머스 업계도 설 선물세트를 판매에 돌입했다. 11번가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0일까지 최대 50% 할인하는 ‘설 선물 한가득’ 행사를 진행하며 11~24일까지는 ‘설 명절 한가득’ 프로모션을 전개한다.

G마켓과 옥션도 23일까지 ‘2025 설 빅세일’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행사기간 할인 쿠폰을 매일 제공하고, 로보락과 삼성전자, LG전자, 아모레퍼시픽, 유한킴벌리, 정관장, CJ제일제당 등 18개 메가브랜드 상품을 위한 추가 혜택을 선보인다. 명절 선물세트는 1만~3만원대 등 가격대별로 구분했으며, 설 특집 라이브방송은 G마켓과 옥션에서 동시에 매일 오후 8시 시작한다. /신원선 기자

SSG닷컴, 최대 50% 할인 ‘릴레이 특가’

일주일간 ‘그레이트 워크’ 진행

SSG닷컴이 을사년 새해를 맞아 이달 12일까지 일주일간 장보기 상품 릴레이 특가 행사인 ‘그레이트 워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행사 첫날인 6일에는 과일 특가 행사가 열린다. 지역에 따라 설향딸기, 제주산 제스프리 골드키위, 더달콤 스테비아 대추 방울토마토 등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이달 7일에는 육류 할인 행사가 진행

된다. 한우 정육 불고기와 국거리를 반값에, 미국산 프라이م 척아이롤 스테이크는 4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무향생제 돼지고기 ‘설성한돈’도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8일과 9일에는 간편식과 가공식품 행사가 각각 열린다. 간편식은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며 가공식품은 일정 수량 구매 시 추가 상품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10일부터 12일까지는 주말 장보기 행사로 달걀, 라면, 두유 등 다양한 장보기 상품을 최대 반값 수준에 선보인다.

SSG닷컴 관계자는 “릴레이 형태의 특가 행사로 체감 혜택을 높이고자 했다”며 “새해에도 가격과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지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해태제과 2025 모든 소망 응원 ‘홈런볼 신년 에디션’

해태제과가 새해 소망을 힘차게 응원하는 ‘홈런볼 신년 에디션’을 출시한다.

해태제과는 2025년 모든 소망을 응원하기 위해 대용량 사이즈 홈런볼 25만 개를 준비했다고 6일 밝혔다. 넉넉한 대용량이라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나눠 먹기도 좋다. 대형 홈런볼로 가족, 친구와 함께 달콤한 과자도 즐기고 새해맞이 힘찬 응원과 행운까지 전달하기 안성맞춤이다.

해태제과는 고객들이 원하는 새해 소원 중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4가지 소원을 선정했다. ‘건강 홈런’과 ‘머니 홈런’, ‘취보 홈런’, ‘내인생 홈런’ 등이다.

홈런볼 마스코트 ‘로(Ro)’가 신입사원 정장과 선글라스를 쓰고 돈을 움켜쥐는 모습으로 등장해 힘찬 응원을 전한다. 제품 패키지 앞면의 QR코드를 통해 새해 소원도 빌고, 행운도 점쳐보는 더블 이벤트도 진행한다.

새해 소원을 댓글로 공유하는 ‘소원공모’와 이벤트 페이지의 2025의 1~25 배수의 접속자가 당첨되는 ‘럭키당첨’ 이벤트다. /신원선 기자